

호남 광주 미륵사 경기 광주에 복지도량 설립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불교복지를 펴고자하는 빛고를 광주 불자들의 원력이 경기도 광주에까지 퍼졌다. 광주 주일동 미륵사(주지 해법)는 1월 8일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북문 입구에 미륵사 선재원을 설립하고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서 해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재원 개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을 펼쳐겠다”고 선언했다.

해법 스님이 불교복지를 서원하고 광주 무등산에 미륵사를 개장한 지 10년만이다. 이날 스님은 점안식 내내 눈시울을 적셨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기 때문이다. 스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가정이 파산됐다. 7남매의 장녀로 출지에 소녀가장이 되었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공부하고 싶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마음이 불교복지를 펴겠다는 원력이 되었다.

스님은 미륵사에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살았다. 음식에 남다른 재주가 많은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 음식공양을 올렸다.

2004년 초파일을 앞둔 어느날, 그린벨트에 세워진 법당이 불법건물 철거반에 의해 허물어졌다. 또다시 하루아침에 가족이 흩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듬해 공양주보살을 위해 마련해준 음식점이 운영난에 허덕이자 음식점을 아예 법당으로 바꾸었다. 저자거리에도 미륵사를 다시 개장한 것이다. 회유하게도 수행환경은 어려워도 스님의 기도와 원력에 감응한 신도들이 몰렸다.

지난해에는 선재원봉사단(단장 구만번)



미륵사 선재원 봉사단이 지난해 12월 광주사직공원에서 노인들에게 떡국공양을 올리고 있다.

웰빙식당 운영해 신행 보금자리 꾸려  
주부 일자리 창출 앞장...노인 요양원도

을 창설했다.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면 시,공간을 초월해 100여명의 회원이 모인다. 선재원 봉사단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외된 이웃과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 공양을 올리고 있다. 동짓날에도 소년원, 요양원, 복지관 등에 돌지죽 5000 그릇을 공양했다.

미륵사 선재원의 음식은 독특하다. 떡국을 끓여도 울긋불긋 색이 나는 웰빙식이다. 단호박, 흑미, 녹차잎 등으로 갖가지 색을 내기 때문이다.

이번 성도재일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미륵사 살림이 어려워도 해마다 4~5명의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만은 빠뜨리지 않았다.

이제 미륵사 선재원은 영광군 바닷가에 1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간다. 스님의 주특기인 음식을 이용해 주부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금을 장학금과 노인복지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다음달에는 노인 요양원 기공식도 갖는다.

이번에 개원한 경기도 광주의 미륵사선재원도 본래 음식점이었다.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가든을 사찰로 개장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정진뿐 아니라 노인들을 모시고 살면서 주부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062)672-0009

이준엽 기자



서용 스님 3주기 추모재 백양사서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성오는 전 조계종 종정 서용 스님 열반 3주기를 맞아 1월 7일 대웅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추모법회에는 방장 수산 스님, 대홍사 조실 천운 스님, 조계종 前 포교원장 안도 스님 등 문도 스님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방장 수산 스님은 “근세 큰스승인 서용 스님은 ‘참사람 주’를 주창하고 평생 참사람 운동을 이끌었다”고 추모했다.

이준엽 기자

곡성 미륵굴에 무각사 ‘우뚝’



곡성군 미산마을에서 사찰건립을 발원하며 정진하던 성호 스님은 1월 10일 미륵굴에 무각사를 창건하고 대웅전 부처님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무각사는 대웅전, 산신각 등의 전각과 요사채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3평 규모의 다선정을 지역민과 불자들이 차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도록 일반에 개방했다. 이준엽 기자

화엄사서 겨울불교학교 개최

순천 금당절, 110여명 참가



겨울불교학교 입제식을 마치고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기념촬영.

순천 금당절(주지 범일은 1월 9일~11일까지 3일간 구례 화엄사에서 겨울불교학교를 운영했다.

“나는 누구지!!! 나를 찾아 떠나는 겨울 불교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겨울학교는 순천,여수지역 초등학생 1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겨울학교는 쫓달명상, 스님과 함께 떠나는 산행,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준엽 기자



생활 속 불교문화

송광사 능허교 옆전 세 냥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돈에도 생명이 있다’고 했다. 시주자의 생명이 담겨있기에 허투로 쓰지 않았다.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에 가면 옛 스님들이 속세의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엿볼 수 있다.

송광사 일주문을 지나면 왼편으로 흐르는 시내를 만난다. 여기를 건너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돌다리, 누각이 어우러져 송광사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세속과 불(佛)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는 무지개 형태의 돌다리인 능허교(凌虛橋)이다. 바로 이 다리 아래에 용머리가 놓여있고,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에 옆전 세 냥이 철사줄에 꿰어있다.

이 옆전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내려온다.

조선 숙종 33년(1707)경 돌다리를 세울 때로 추정된다. 주지스님은 다리 불사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회주를 시



송광사 능허교밑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에 옆전 세 냥이 철사줄에 꿰어 있다.

“시주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돌다리 불사 끝나고 남은 돈 매달아 둔 것

작했다. 무사히 불사를 회향하고 나니 동전이 세 냥 남았다. 돌다리 불사는 끝났는데 남은 돈이 문제였다. 시주 받은 금품을 다른 일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옆전에 매달아 두기로 했다. 훗날 돌다리를 보수하거나 새로 건립할 때 보태 쓰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시주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송광사 스님들의 마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7년, 송광사 범종불사를 할 때였다. 휘봉 노스님이 당시로는 거금인 150만원의 불사금으로 내 놓았다. 이 돈에는 뜻하지 않은 사연이 담겨있었다.

송광사는 6·25전쟁 당시 큰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과 종고루가 소실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중창불사를 하면서 종 불사를 함께 했다. 당시 송광사 주지였던 휘봉 스님은 종 불사를 위해 회주한 돈으로 범종을 주조하고, 남은

시주금을 딴 곳에 전용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그러다가 종이 깨져 다시 종 불사를 하게 되자 불사금으로 내 놓은 것이다.

구산 스님과 함께 송광사 복구를 위해 혼신을 다했던 휘봉 스님은 오랜 주지생활에도 사방승들과 개인사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공사를 분명히 했다. 어느 때보다도 사중살림이 어려웠던 시절에 범종불사를 마치고 남은 돈과 20년간의 이자를 쟁겨놓았던 것이다.

용이 옆전 세 냥을 물고 있는 능허교 위에는 ‘날개가 생겨 날아올라 신선이 된다(羽化登仙)’는 우화각(羽化閣)이란 누각이 있다.

한 폰의 오차 없이, 한 생각의 빛진 마음 없이 인과에 분명한 이리야 능허교를 건너 우화등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능허교를 바라보고 있다보면 돈에도 생명이 있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와 부처님 세계로 날아간다는 법음이 들리는 듯하다.

이준엽 기자

‘행복한 해남만들기’ 불자들 앞장

대홍사·사암련, 군민안녕 위한 신년기원법회 가져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해남의 스님과 불자들은 지역 기관장과 군민을 초청해 지역주민의 안녕을 기원한다.

급전에도 해남불교사암연합회와 대홍사

는 1월 9일 대홍사 보현전에서 ‘해남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신년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해남지역 사암 스님과 박희현 해남군수, 김평운 군의장, 권세도 경찰서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신도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홍사 주지 풍산 스님은 신년법회에서 “누구나 부처님 대하듯 존중할 때 갈등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다 잘 사는 해남이



해남지역 신년하례법회에서 해남 대홍사 주지 풍산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된다”며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기”를 기원했다.

지역기관 및 단체장들도 “행복한 해남만들기에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며 신년 덕담을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홍사신도회가 마련한 떡국으로 조공을 했다. 이준엽 기자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입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사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벤처(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유림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8주 1월 18일 - 1월 24일 [153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월 18일[목]	내사읍고개	-	성전암 24km
1월 19일[금]	성전암	-	진성읍 23km
1월 20일[토]	진성읍	-	진주시 20km
1월 21일[일]	진주시	-	원전면 22km
1월 22일[월]	원 전	-	횡천역 23km
1월 23일[화]	횡천역	-	진 상 20km
1월 24일[수]	진 상	-	광양읍 21km

제 9주 1월 25일 - 1월 31일 [15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월 25일[목]	광양읍	-	별양면 20km
1월 26일[금]	별 양	-	열가재 22km
1월 27일[토]	열가재	-	보성읍 22km
1월 28일[일]	보성읍	-	장흥읍 27km
1월 29일[월]	장흥읍	-	강진읍 21km
1월 30일[화]	강진읍	-	학 산 26km
1월 31일[수]	학 산	-	목 포 20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이 게재됩니다.